

한국교회초기의 교회음악에 대한 연구

-선교초기부터 1910년까지-

김 영 미*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개신교의 한국선교와 한국교회

2. 한국교회 초기의 교회음악

1) 찬송가 출판 이전의 교회음악

2) 초기의 찬송가들

3) 찬송가들의 특징

3. 초기 교회음악이 교육과 사회에 미친 영향

III. 결 론

I. 서 론

교회음악에 사용되던 악기에 대한 기록이나 한국인의 독자적 가사체의 음악은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어왔다. 「오르간」만 하더라도 言山人의 기록에 의하면 약 600여년전에 조선인들이 접촉하였고, 朴燕岩과 金考歌齋는 북경의 천주교회당에서

* 부교수, 성악전공

보았던 오르간에 대하여 그들의 저술에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 그리고 박연암의 친구 洪大容은 국가의 보조만 얻는다면 능히 오르간을 제작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까지 하였다.²⁾ 또 천주교의 외국신부들에 의한 전교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을 통하여 입수한 책으로 입신하여 모임을 가지면서 강학하였던 1777년경의 천진암과 주어사에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천주가사가 만들어져 읊어졌었다. 물론 이때의 천주가사가 천주교회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사제가 없었던 때이므로 교회가 없었다는 이유와 특히 전통적 의미의 곡조가 없이 읊어졌던 가사이므로 교회음악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만,³⁾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형식이 비록 서양적 의미의 곡조와 다르다고 할찌라도 당시 조선 후기의 대중가사 형태인 4·4조를 채용하여 불리워졌던 가사임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신앙적 교훈과 고백이므로,⁴⁾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음악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천주교회에서는 최양업신부의 천주가사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 그를 한국교회 음악의 선구자를 칭하고 있다.⁵⁾

그러나 개신교의 교회음악은 그 유입에 있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그리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다.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이전의 기록이나 천주가사와 개신교의 교회음악을 연결시키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천주교회의 전교와 개신교회의 선교가 서로 협력한 것이 아닌 것처럼 초기 한국교회의 음악도 서로 독자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초기 한국교회에 전래된 찬송가 음악은 영국과 미국의 부흥찬송가들이 지배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천주교회는 그후 프랑스 미사곡을 지배적으로 교회성가집에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개신교 교회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그 유입과 발전, 그리고 내용과 성격의 규명, 한국서양음악에 미친 영향들을 취급해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의 선교와 함께 시작하여 1910년 경까지의 초기한국교회의 교회음악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시켜 생각해 볼 것이다.

1)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 음악춘추사, 1985, pp.31f.

박연암은 정조2년, 김노가제는 숙종38년에 북경을 방문한후 그들의 책에 기록하였다. 박연암은 특히 그의 책 「열하일기」에서 天主堂風琴記를 따로 분류기록했을 정도이다.

2) 앞의 글.

3) 김건정, 「교회전례음악」 서울 : 카톨릭 출판사, 1987, p.90.

4) 서정민, “한국찬송가 개관”, 한영제편, 「한국성서찬송가 100년」 서울 : 기독교문사, 1987, pp.58~62. 서정민은 「천주가사」가 한국천주교인들의 신앙적 결단과 감화를 토착적인 문학형태로 용해하여 신앙적 권면과 찬미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았고, 그 내용적 특성을 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② 종말론적 사후관 ③ 현세는 내세를 위한 준비와 연단의 때 ④ 공동체 의식의 발현 ⑤ 국제성과 외래문화 수용의 개방성이라 했다. 또 천주가사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나 사상을 천주의 존재증명과 공경을 위해 변증법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중요한 천주가사는 정약전의 「십계명가」 이벽의 「천주공경가」가 있다.

5) 김건정, 앞의 책 p.91. 최신부는 전교의 목적으로 가사를 지어 사목의 성공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가 지은 천주가사는 한국의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II. 본론

1. 개신교의 한국선교와 한국교회

개신교의 한국전래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곧 유럽의 기독교 국가적 형태의 선교와 미국의 교파중심적인 선교가 그것이다. 유럽교회의 선교노력은 미국의 선교보다 앞선 것이었기는 하나 바닷가를 스쳐지나갔을 뿐이며, 교회의 설립에 이르지 못했다.⁶⁾

유럽교회의 한국접촉이 벨트브레와 하멜(John J. Weltvree 1627, Hendrik Hamel 1653년)에 이어 최초로 방문한 칼 구츨라프(Karl Friderich August Gutzlaff) 선교사가 1832년 황해도 백령도, 군산, 홍주, 고대도, 안항에 방문하여 한문성경으로 전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 말로 번역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40일 정도 머물면서 전도한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 33년이 지난 후 런던선교회 소속의⁷⁾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목사가 박해를 피해 중국에 왔던 김자평을 통해 한국의 형편을 알고 김자문의 안내로 황해도 지역에서 2개월간 전도하였으며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으나 전투와 방화로 준비한 성경을 강변에 살포하고 참수되었다. 이 두차례의 선교시도는 씨앗을 뿌렸지만 교회의 설립에 이르지 못했다.

토마스목사의 순교를 계기로 만주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회 월리암슨(Alexander Williamson)과 로스(John Ross), 그리고 매킨타이어(John McIntyre)목사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를 위해 고려문에서 한국인들을 접촉하려던 오랜 시도끝에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를 만나 신 문화를 가르치면서 한국말을 배우던 중, 이들이 개종하여 세례를 받아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세례교인이 되었다.⁸⁾ 이것은 1876년에 이루어졌던 일로서 1884년 의사 선교사 알렌(Harace N. Allen)의 입국보다 8년이나 앞선 사건이었다.

그후 이 네사람과 협력하여 로스목사는 한국어 성경번역에 착수하였는데 그 때 마침 서상륜이 우장에 와서 1881년에 세례를 받고 성경번역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성경이 번역된 후 백홍준이 1883년 의주에 입국했고, 반년후 10여명의 신자를 얻어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이면서 의주교회의 시작이다.⁹⁾ 그리고 서상륜은 기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그의 고향 의주에서 가족에게 전도한 후 황해도 솔내(松川)에서 전도하였다. 1884년 로스목사가 보낸 6천권의 성경을 인수받은 후 이성하와 함께

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pp.134~163.

민경배교수는 그의 책에서 한국에 들어온 프로테스탄트의 유형을 크게는 이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7) 후에 한국의 선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 월리암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장로교사(고신) - 1988」 부산 : 고신출판사, 1988, p.29. 민경배는 그의 「한국기독교회사」 p.165에서 1864년 중국에서 세례받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사람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9) 앞의 책, p.31.

설세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1885년에는 순전히 자력으로 초가8간의 한국최초의 교회당을 건축하였으며, 58세대중 50세대의 성인을 포섭할 정도로 발전했는데,¹⁰⁾ 그 솔내교회는 백낙준박사의 말처럼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잇을 수 없는 요람지”이다.¹¹⁾ 이후 서상륜은 서울에서 전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입국하기전, 서울지방에 약 70명 정도의 교인이 이미 있었다고 한다.¹²⁾

한편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1883년 세례를 받고 미국성서공회와 함께 성경번역사업을 시작했는데, 1885년 1월 한국 최초의 입국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일본의 도쿄에서 이수정의 번역성경을 받고 한없이 기뻐하였다.

미국을 통한 교파단위적인 선교는 유럽선교회의 성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과 주도권을 한국초기교회에 행사하였다. 미국 북장로교의 알렌이 의사의 신분으로 1884년 입국하였으며, 다음해인 1885년에는 정식으로 미국교회로 부터 한국의 개척선교사로 파송받은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북감리교의 아펜셀라(H. G. Appenzeller) 부부가 부활절 아침에 입국하였다. 그후 1889년 호주장로회의 데이비드(J.H. Davis와 Miss. M.T. Davis)남매, 캐나다 YMCA의 게일(J. S. Gale), 캐나다 침례교의 펜윅(Malcom C. Fenwick), 캐나다 장로교의 하디(Dr. R.A.Hardie), 1890년 영국 성공회의 존 코프(John Corfe), 1892년 미국 남장로교의 레이놀드(Wm. Davis Reynolds)외 6명, 1893년 캐나다 장로회의 매켄지(William John Mekenzie), 1895년 미국 남감리회의 리이드(C.F. Reid), 1904년 안식교, 1907년 미국 동양선교회(성결교), 영국 구세군의 호가드(R. Hoggart)가 1909년에 입국하면서¹³⁾ 각 교파적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선교사들은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교회를 설립하며 신교육을 위한 학교들을 설립하여 선교적 입장에서 교육을 실행하였고, 각종 의료기관을 통해 병자를 치료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회음악이 함께 소개되어 불리어졌는데, 이 교회음악의 영향은 미션스쿨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었으며 교육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2. 한국교회초기의 교회음악

1) 찬송가 출판이전의 교회음악

찬송은 기독교예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모임이나 교회의 설립은 교회음악의 시작과 때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는 천주교의 경우에서 처음에 볼 수 있었던 당시대의 한국적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양의

형식이 소개되어 서양적 곡조에 따라 불리워졌다.¹⁴⁾ 물론 1892년 이전의 교회음악이란 단순한 찬송이상 어느 것도 아니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찬송가의 필요성외에 음악적 발전이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선교초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이 서양선교사들의 입국이전에 이미 많은 신자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한국초기의 교회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찬송들을 불렀는데, 이 찬송들은 중국찬송가임에 틀림없다.

1887년 입국한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된 새문안교회는 서상륜이 전도한 13명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의 최초의 장로였던 서상륜과 백홍준은 이미 중국에서 전도받은 후부터 중국어 찬송을 불렀고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실제로 백홍준의 따남인 백판성씨는 자기 아버지 백홍준이 새문안교회에 있을 때 매일 새벽이면 오늘날의 “예수사랑하심은”을 중국어 찬송으로부터 ‘쥬 예수 애워’를 불렀다고 전한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는 만주로부터 돌아오셔서 매일 새벽이면 기도하시고는 나즈막한 목소리로 「쥬 예수 애워…」 (主耶穌愛我)를 부르시던 기억이 난다.”¹⁵⁾

서상륜과 백홍준 등은 한국에서 교회를 설립하여 비밀히 전도하면서 각 가정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보았다. 솔내교회의 신자들이 세례받기를 언더우드에게 요청했을 때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은 주일마다 신자의 가정을 순번으로 돌아가며 밤에는 파수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만주에서 배워 부르던 중국어식 찬송을 필경 낮은 소리로 불렀을 것이다.¹⁶⁾

그리고 중국찬송가의 사용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아펜셀라가 그 당시의 사정에 대하여 자신이 편집한 찬송가의 서문에서 “조선말로 찬미를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나니 조선 교회에서 처음에는 지나(支那)찬미가에서 얼마를 써 보았으나 가사의 뜻을 잘 알 수 없었으며…¹⁷⁾”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1894년에 출간된 언더우드의 「찬양가」의 목차에 한문목차와 한글목차가 나란히 병기되어 있는 것도 초기의 중국찬송가 사용을 감지할 수 있게 해 준다.¹⁸⁾

중국어 찬송가외에도 미국선교사들의 입국과 영향력에 비례하여 영국과 미국의 찬송들이 번역되어 가르쳐지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로 직접 불리워 지기도 했다. 1886년 아펜셀라가 설립한 배재학당과 스크랜턴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에서는 정규과목에 「찬가」라는 것을 두고 가르치고 있었다. 1890년 영화여학교를 세웠던 존즈여사가 “음악을 그

14) Paik Lak-Geon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 Yonsei univ. press, 1970, p.249.

15)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서울 : 종신대학출판부, 1977, p.117.

16)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 음악춘추사, 1985, p.36.

17) 원진희, 「교회음악약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6, p.128.

18) 조숙자, 조명자, 「찬송가학」,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1, p.204.

10)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p.172.

11) 민경배, 앞의 책 p.171에서 중인.

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p.32.

13) 앞의 책, p.40. 각주.

때는 찬가라고 하였는데 주로 찬미가를 번역하여 가르치고 있었다.”¹⁹⁾는 언급을 참고할 때, 찬가시간에 영어 찬송가를 번역하여 가르쳤거나 영어로 불렀을 것이다. 이화학당의 초기 졸업생인 김룻세(1888~1897)에 의하면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니까 소꿉질을 하게 하고 주기도문, 또는 찬송가를 영어로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통역도 쓰지 않고 대뜸 영어로 가르쳐 주었다.”²⁰⁾고 한다.

그리고 반주를 위해 필요한 오르간은 1887년경 이화학당에서 음악시간에 벙커(Bunker) 부인이 풍금으로 반주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역시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용되었는데, 곧 리이드 오르간(풍금)이었을 것이다.²¹⁾ 그리고 1891년에는 이화학당에서 성악과 오르간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찬송가 출판 이전의 교회음악은 유아기 상태의 한국교회 상태에서 유추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하고 쉬운 예배용 찬송가들이었다. 이 찬송의 유입은 중국어 찬송과 미국찬송가들중 복음적 성격의 노래였다. 선교사들은 찬송을 예배용도와 함께 교육용도로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므로 찬송가의 편집과 출판을 계획하였다.

2) 초기의 찬송가들

한국교회 최초의 찬송가는 미국 감리회 한국선교사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존즈(George A. Jones : 趙元時)와 역시 동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로 이화학당에서 활동한 로드와일러(Louise C. Rothweiler)가 편집한 「찬미가」이다. 이 찬송가는 1892년 手形本으로 보급된 최초의 것인데,²²⁾ 이것은 唐紙39매의 총27장으로 이루어진 소형찬송가이며 악보는 없었고 가사만으로 이루어진 감리회 전용의 찬송가였다. 이 「찬미가」는 그후 중판을 거듭하였는데, 1895년에는 제3판으로²³⁾ 국판46매에 81곡을 수록하여 출판하였다. 그리고 1897년 제4판은 국판 53매의 수록찬송 90곡으로 증보되어 1500부가 출판되었다. 1899년 제5판에서는 4·6판 156매의 수록찬송176곡으로 대폭 증보되었으며, 1902년 제6판에서는 총205곡이 수록되어 출판되었다. 물론 중판이후에는 악보가 함께 포함되었다. 그리고 「찬미가」의 거듭된 중판의 이유는 감리교측과 장로교측의 합동 찬송가 편찬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결과였다. 곧 언급될 언더우드(H.G.Underwood)의 장로교측 「찬양가」가 계획과는 달리 단독 출판되자 감리교측도 찬송가 문제에 있어서 장로교측과 결별하고 감리교회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19) 원진희, 「교회음악약사」 p.127에서 중인.

20) 조숙자, 조명자, 「찬송가학」 p.204에서 중인.

21) 김건정, 「교회전례음악」 p.88.

22)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198.

23) 이유선은 그의 책 「한국양악 백년사」(p.37)와 「기독교음악사」(p.136)에서 1895년의 이 중판을 ‘재판’으로 분류 기록하고 있지만, 실은 제3판이다. (한영재편, 「한국성서찬송가 100년」 서울 : 기독교문사, p.133. 그리고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p.347 참고)

찬송가로 충분히 증보된 「찬미가」의 발행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3판(1895년) 「찬미가」에는 언더우드의 「찬양가」에서 13곡(14, 21, 22, 23, 50, 52, 56, 58, 61, 65, 66, 67, 73)이 포함되었고, 북장로교 여선교사 베어드부인의 노래가 10장(29, 31, 32, 33, 40, 41, 62, 63, 74, 80)이 포함되었으며, 감리교 선교사 편에서는 미국 감리회 여선교사 노블부인의 노래가 3장(39, 49, 77)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찬송들과 함께 직접 영어나 중국어에서 번역하였다.²⁴⁾

그리고 편집은 복음의 주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절기 찬송을 정리하였으며, 또 편리를 위해 미국 감리교회나 기타 알려진 찬송가의 곡조번호를 기록하여 그 곡조에 맞추어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²⁵⁾

그러나 제대로 갖추어진 찬송가의 편집으로서 최초의 것은 189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G.Underwood)의 「찬양가」이다. 이 찬송가는 사성부(四聲部)의 악보가 한 면의 상반부에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의 하반부에는 가사가 기록된 형태로서 서양식 악보가 인쇄된 최초의 한국음악책이다. 이러한 악보와 가사가 함께 표기된 찬송가는 우리나라 서양음악 이입사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⁶⁾ 발행처는 예수경 교회당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국판 128면의 총 11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찬양가」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당시부터 장로교와 감리교의 찬송가 출판문제에 있어서 얽힌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래 이 찬송가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하여 편찬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며,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가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존스가 함께 자료수집의 책임을 위임받았었다. 그러나 존스(G.H.Jones)가 미국에 돌아가서 일년 남짓 체류하여 찬송가 편찬이 지연되자 언더우드는 한국 장로교회의 찬송가 출판에 대한 요구와 제촉,²⁷⁾ 그리고 그 자신의 정열적인 열심으로²⁸⁾ 단독 간행하되 감리교회측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그의 형이 보낸 출판비로²⁹⁾ 일본에서 이 「찬양가」를 출판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리교측은 연합찬송가의 계획을 취소하고, 또 언더우드의 「찬양가」 대신에 감리교회의 사용을 위해 「찬미가」를 증보하여 1895년 「찬미가」 3판을 별도로 편찬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의 불화는 장차 양교회의 계속적인 불화의 한 단면이 바로 찬송가였다는 구슬픈 결과를 남기게 되었다.³⁰⁾

그리고 또 다른 불화의 요인은 「찬양가」에 사용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번역 부분이었다. 언더우드는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가진 바 일반적인 그리고 혼돈될 수도 있는

24) 서정민, “한국찬송가개관” (한영재편, 한국성서찬송가100년, 서울 : 기독교문사, 1987, p.65.

25) 앞의 글.

2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346.

27) 앞의 책, p.346.

28) 조숙자, 조명자, 앞의 책 p.212.

29)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Fleming H. Revell co. 1918, p.121 f.

30)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199.

의미 대신에 '여호와'나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좋아했던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신'이라는 용어를 빼버렸다. 그 대치의 이유를 그의 부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번역을 수정한 방식이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기독교인의 '신'에 대한 고유용어인 '하나님'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쾌하게 했다. 언더우드와 이 찬송가들을 만들면서 기독교의 신에 대해 사용한 단어는 '여호와'와 '아버지' 밖에 없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신'이라는 용어를 모두 빼버렸다. 그는 연합찬송가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버지'나 '여호와'같이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말을 써야만 그 찬송가를 누구나 기꺼이 사용하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여 선교회는 그 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³¹⁾

이러한 크게 2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찬양가」는 초교파적으로 두루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 후 「찬양가」는 1895년에 4·6배판 82매의 총 154장으로 재판되었고 1896년에 국판 152면 총 154장으로 3판, 1900년에 4·6판 총 182장으로 4판되는 등 중판을 거듭하여 장로교회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찬양가」는 한국찬송가에 큰 공헌을 하였는데, 민경배 교수는 교회사적 입장에서 「찬양가」의 공헌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³²⁾

첫째, 찬양가는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으로 찬양의 뜻을 삼은 복음적 성격을 지녔다.

둘째, 「찬양가」에서 언더우드는 장로교적 교회론을 은연중에 표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언더우드는 「찬양가」 전 117장중 9장의 한국인 작사 노래를 편입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찬송가는 1895년 북장로교 선교사인 리(Graham Lee : 李吉威)와 기포드(M.H.Gifford)부인이 공동으로 편집한 「찬성시」이다. 「찬성시」는 국판56면에 54장의 찬송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2판은 1898년에 소형본 43면에 모두 83장을 수록하여 출판되었고 제3판은 소형본 총87장을 수록하여 1900년에 발행되었다.³³⁾ 언더우드의 「찬양가」가 주로 서울 지방에서 공인받지 못한 채 사용되었으나 「찬성시」는 처음에 서북지역 장로교회에서 사용되다가 1902년에 장로교공의회에 공식찬송가로 선택되어 개정 검토의 작업을 거쳐 1905년 이를 기초하여 모펏(S.A.Moffett)이 편집하여 「곡보찬성시」를 간행하였다.

31) L. H. Underwood, 앞의 책, pp.123~124.

32) 민경배, 앞의 책, pp.199f.

33) 서정민, 앞의 글, p.68.

이 「곡보찬성시」는 그 발행처가 대한장로회공의회로 되어 국판 189매에 137곡이 수록되었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합동 찬송가가 나오기전까지 장로교의 공식찬송가로 사용되었다.³⁴⁾ 악보가 첨부된 「찬성시」에서는 이전에 많은 찬송들이 여러가지 곡조로 불려지던 것을 각 찬송에 고정된 곡조를 붙여 통일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128장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소알론(William L. Swallen)선교사가 한국말로 만든 가사에 그 곡조는 아일랜드 민요 "Annie Laurie"붙인 것과, 독일 찬송 "Ein feste Burg(못 패할 성은 하나님, 제131장)이 처음 수록된 것이다. 그리고 개척교회의 전통을 암시하는 14편의 시편찬송이 포함되었다.³⁵⁾ 그러나 그 곡조는 제네바 시편가나 영어 시편가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일반 찬송곡조였다.³⁶⁾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1905년에 출판된 윤치호역술 김상만 발행 「찬미가」이다. 이 찬미가는 1908년 재판까지 발행하였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공식간행이라는 증거가 없고 널리 채택되어 보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한국인 개화운동가 윤치호의 역술이라는 점과 제1장에 '황제폐화송'이 수록되어 있고, 제14장에는 '애국가'가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애국가는 이 「찬미가」에서 문서상으로 처음 기록되었다.³⁷⁾ 이 「찬미가」는 한국인에 의한 토착신경적 고백찬송가가 부족하던 시기에 쇠하여 가는 국운앞에서 민족신앙이 응축된 찬미들이 편집되었지만, 아마도 민족신앙을 경계한 선교사들 측에서 이 「찬미가」가 감리교회의 공식찬송가로 사용되는 것을 막았고, 발행과 보급일체를 사제찬송가라 하였을 것이라고 민족적 입장에서 교회사를 취급하는 민경배교수는 지적한다.³⁸⁾

그외에 캐나다 출신의 침례교선교사인 펜윅(M.C.Fenwick)이 1899년 독자적인 찬송가인 「복음찬미」를 발행하였다. 총 14장의 찬송가가 수록되었는데 그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어떤 곡은 그가 직접 작곡까지 하였던 찬송가로 이후에 동아기독교회 전용찬송가가 되었다. 1900년에 제2판을 발행하였고, 1912년 제3판을 발행했으며, 증보를 거듭하여 1939년 해방전 마지막 판에서는 274장을 수록했다. 그는 복음적 신앙의 입장에서 적합한 가사와 곡조를 엄밀하게 선별하였는데, 그 증거로써 그의 「복음 찬미」 서문에서 펜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 이외의 어떤 것도 이 찬미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은혜스럽지 못한 비찬송적인 것이 있다면,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 즉 나의 복음찬미 속에 음악의 선율에 맞지 않는 바가 있거나 또한 축복된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의 공적을 찬양하는데 어긋나는 단 하나의 가사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뽑혀서 폐기되

34) 앞의 책, p.134f.

35) 시121. "눈을 들어 산 보리니 도움 어디서 오나", 시130, "내가 깊은 곳에서 쥬를 불너 알외디", 시138 "내가 일심으로 쥬를 기리고", 시23 "하느님 내 목자시니"등.

36) 조숙자, 조명자, 앞의 책, p.215.

37) 서정민, 앞의 글, p.70.

38) 민경배, 앞의 책, pp.204f.

서정민, 앞의 글, p.71, p.136 참고.

어야 한다.”고 했다.³⁹⁾

그리고 1903년 영국성공회가 「성회송가」를 간행하였으며, 이듬해에 「천도찬사」라는 제목으로 증보하였고, 1905년에는 「찬미가」라는 성가집을 발행하였다. 그후 1910년에는 다시 「聖會頌歌」를 주제와 절기에 따라 상세하고 풍부하게 편집하여 총 266장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1908년에 이르러서야 장로교와 감리교 합동찬송가가 262곡을 담아 출판되는 역사적인 찬송가 통일로 한국교회는 하나의 찬송가로 노래하게 되었다. 이전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불화를 극복하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이 선교부를 통합하여 경영하고 한국에 단일 복음주의 교단을 조직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1905년에 찬송가 연합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1902년 한국장로교공의회는 다른 교파와 찬송가 합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고,⁴⁰⁾ 그 이듬해에 북감리회 연회에서 추천위원회가 “찬송가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제출하고 남감리회 선교부에서 그 위원회에 두 사람을 파견하여 찬송가 편찬에 협력하도록 요구”하였는데⁴¹⁾ 이는 그들이 발행해 온 찬미가의 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1905년의 교파합동을 위한 단체적 합의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장로교 공의회의 적극성에 힘입어 여러 교단의 찬송가 위원들이 ‘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회’를 조직하고 공동찬송가를 준비 발행할 권한을 ‘재한 복음주의선교부 통합공의회’로 부터 부여받았다.⁴²⁾ 선정된 편집위원은 배위량선교사 부인(Mrs. W. M. Baird), 민호아(F. S. Miller)목사와 벙커(D. A. Bunker)씨였다. 1908년 간행단계에서 일본 오키야마의 후쿠인인쇄회사의 화제로 한달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1908년 역사적인 연합찬송가가 간행되었다. 이 찬송가에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곡조나 가사가 많이 실려있었고 가사도 그 세련정도가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노래부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찬송도 다섯장(10-14)이 있었다.⁴³⁾ 「찬송가」로 명칭지워진 이 연합찬송가는 1908년에 6만부, 1910년까지 22만5천부를 발행하였고, 1911년 한해에 5만부를 발행할 정도였으며, 그 서문은 다음과 같은 감격적인 글이 실려있다.

“...주의 빛이 초선에 림흔 후에 감리회와 장로회의 찬미칙이 곳지아니하여 광교인이 흑흑곳에서 레비 불새에 찬미를 피촉에 곳치 부르지 못하여 서로 즐거움이 온전치 못하여 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회를 주사 두 회의 노래를 합하여 혼칙을 문드렸스니 실노

39) 서정민, 앞의 글, p.71에서 중인.

40) “委員을 選定하여 他派와 交涉하여 聯合한 讚頌歌를 編纂하기를 經論하게 하였나니라.” (장로교회사전회집, p.25) 서정민의 글 중인, p.73.

41) 이만열, 앞의 책, p.351.

42) 앞의 책, p.352.

43) 앞의 책, p.353.

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깃쁘게 하는 춤 아름다운 찬송이로다.”⁴⁴⁾

이 「찬송가」는 그후 20여년간 한국교회에서 사용되었다.

3) 찬송가들의 특징

한국교회 초기의 교회음악이란 선교 초기의 교회였기 때문에 찬송가음악이 그 범위에 있어서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한국교회였지만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여러 가지 찬송가가 다양하게 편집,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찬송가들의 편집과 다양성에 내포된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거의 모든 찬송가는 선교의 주도권을 가졌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교회의 음악, 그리고 특히 그 선교사들의 신앙적 배경이 되는 영미의 청교도적인 특성과 당시의 부흥운동이 초기 찬송가에도 깊게 스며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찬송가의 구성적인 측면만 보아도 1895년의 「찬미가」에서 영국의 찬송가가 54장, 미국의 찬송가가 15장, 한국의 찬송가가 4장, 독일의 찬송가가 1장, 시편이 1장, 선교사가 가사를 우리 말로 붙였던 찬송이 2장, 그리고 미상이 4장으로 영미의 찬송가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894년의 「찬양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곧 영국의 찬송이 79장, 미국의 찬송이 23장, 한국의 찬송이 9장, 시편1장, 미상으로 4장, 주기도문 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898년의 「찬성시」에서도 영국의 찬송이 33장, 미국의 찬송이 22장, 한국의 찬송 1장, 독일의 찬송 1장, 일본의 찬송 1장, 시편 14장, 이사야서 2장, 창작가사 2장, 미상으로 7장이니 그야말로 영국과 미국 찬송가들이 거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의 영국을 제외한 기독교국들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찬성시」에서 획기적으로 시편을 14장이나 찬송가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그것도 곡조에 있어서 제네바 시편가나 영어 시편가의 곡조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영·미의 복음적 찬송곡조들로 불리워졌을 정도이다.⁴⁵⁾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도 복음주의적 성격이 지배적이다. 언더우드의 「찬양가」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으로 찬양의 뜻을 삼았던 것이나⁴⁶⁾ 펜윅스가 찬미는 주님이나 성서 그리고 성신 이외의 것을 찬양하거나, 종교적 감정을 이외의 것을 찬양하거나, 종교적 감정을 노래하거나 사람을 행어나 찬양하는 일, 곧 복음이 아닌 것을 찬양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빼어 버려야 할 것이며, 예수의 피, 그것만이 찬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영·미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므로 한국의 초기 찬송가에 나타난 영·미의 영향력은 이해되고도 남는다.

44) 서정민, 앞의 책, p.75 중인.

45) 조숙자, 조명자, 「찬송가학」 앞의 책, p.215.

46) 민경배, 앞의 책, p.199.

둘째는 신학과 교파의 영향이 찬송가의 다양화에 대한 이유이다. 비록 나중에 1908년 「찬송가」로 연합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찬송가의 편집에 있어서 번역에 나타날 수 있는 신학적 문제와 교파사이의 이해관계는 여러가지 찬송가를 각기 출판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언더우드의 「찬양가」가 하나님의 명칭사용에서 겪었던 불일치와 「찬양가」출판으로 감리교회가 독자적으로 「찬미가」를 증보 출판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신학과 교단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찬송가가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개별적 발행과 합동의 순환으로 혼돈을 거듭하게 된다. 언더우드의 「찬양가」 101장 “聖會基址”도 교회와 세례에 대한 장로교적 가르침이 깊히 스며져 있다.

“성회거지 하나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 물과 도로써 새로 조성흔 거실씨 / 성새아씨 차지라 하늘서 다했네 / 성회를 피로 사고 명뉘신 죽었네.

만국에서 썬사름 한 성회된 거슨, / 오직 혼쥬 혼 세례 혼 아버지 잇네, / 혼이름만 복 주고 혼음식만 먹네, / 다 혼 은혜로 님혀 혼바름만 잇네.

세번째 특성은 한국인 작사의 찬송들이 필요성만큼이나 많이 포함되지는 못한점이다. 한국인 찬송가의 찬송가 편집에 대한 문제는 교회음악의 토착화⁴⁷⁾내지 주체성 확립의 시급성⁴⁸⁾의 시각에서 교회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교회사가들에 의해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실로 선교사들조차 번역송들이 안고 있는 번역자체의 적합한 전달문제와 전인적인 신앙적 감흥의 전달에서의 어려움을 고민하면서 한국인의 토착적 고백의 찬양이 필요함을 역설해 온 터였다.

찬미가에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번역으로 적절하고도 가납될 만한 찬송가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한 찬송가의 번역을 가지고 줄곧 며칠씩 골치를 앓으며 애쓰고, 겨우 한줄정도 해 놓고 不定에 끝인 경험들을 다하고 나서 우리는 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곧 이 한국 백성들 틈에서 그들 마음 그대로 솟구치는 가락으로 노래할 그들 자신의 찬송가 작곡 작사자들이 나와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었다.”⁴⁹⁾

그리고 선교사 게일(J. S. Gale)도 역시 한국인의 심성과 어휘에 알맞는 자체의 찬송가가

47) 나운영,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나-나운영 제4수상집」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나운영은 교회음악의 토착화의 시급성을 ‘찬송가의 토착화’(pp.37f), ‘한국교회선교백년과제-교회음악의 정립문제’(pp.49~51), ‘교회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에 대하여’(pp.59ff)등의 글에서 강하게 논하고 있다.

48) 김정일, ‘한국교회음악의 주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2집 부산 : 고신대학, 1984 참고.

49) 민경배, 앞의 책, p.202 중인.
그리고 언더우드도 「찬양가」에서 서상륜과 최명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편찬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말대로 “곡조를 맞게 하라 혼죽 글즈가 명혼 수가 잇고, 즘음도 고하 청탁이 잇서서 언문자 고더가 범대로 틀닌거시”였다.(같은 책, p.201)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번역 찬송은 시문학적 표현도 아쉬운 동시에 시적 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서양식 음악은 한국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며……한국 사람은 놀랄만큼 음악에 대하여 민감하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한국적인 토착 찬송가가 나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국 번역 찬송은 내용의 명료성, 운율, 억양, 경어에 있어서 결함이 많다. 대부분의 번역이 내용은 좋으나 표현이 분명하지 못하여 어색하여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경어 사용도 제한된 글자수 때문에 「흠쇼셔」하다가 ‘히’나 ‘헉게’로 산만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고상한 표현이 아쉽다.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공경심과 위엄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번역으로는 불가능하다.”⁵⁰⁾

실제로 찬송가사의 한국어 번역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어서 때로 찬송가마다 다르게 번역되었다. 예를 들어 ‘예수사랑하심은’의 찬송을 1절만 비교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찬미가

1. 주 사랑내알기는 성서말씀분명히
어린아히쥬맛터 연약함을 붓드네
(후 령)
예수날 사랑 예수날 사랑
예수날 사랑 성서에말잇소.

찬양가

1. 예수나를 사랑호 성경에 말씀일세.
어린히임자요 예수가피로삿네.
(후 령)
예수날 사랑호 예수날 사랑호
예수날 사랑호 성경말씀일세.

찬성시

1.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말일세
어린거시약하나 예수권세만토다
(후 령)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쓰셨네.

찬송가

1.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말일세
우리들은약하나 예수권세많은도다

50) 조숙자, 조명자, 앞의 책, pp.215f 중인.

(후 령)

날사랑하심 날사랑하심

날사랑하심 성경에쓰셨네.

초기부터 찬송가안에 한국인이 작시한 찬송가가 포함되었다. 1895년의 「찬미가」에는 4곡이 포함되었는데, 백홍준의 ‘우리 비록난 하나’(69)와 한국인 익명의 ‘예수의눔흔일 흠이’(43), ‘눔흔일흠찬양하고’(66), ‘세상사름죄악만하’(70)이다.⁵¹⁾ 그리고 「찬양가」(1894년)에는 한국인 찬송이 9곡으로 백홍준의 ‘어렵고 어려우나’와 역시 작시자 미상으로 ‘나눔밋네나눔밋네여호와이’, ‘우리예수큰공로가’, ‘예수의눔은일흠이’, ‘세상사름 죄악만하’, ‘이세상을내신이논’, ‘만국방언다잘하고’, ‘고로움과 어려움’, ‘이세상의준망’들은’이다.⁵²⁾ 그러나 「찬성시」에서는 1곡으로 줄어들어 버리는데 백홍준의 ‘어렵고어려우나’만 남아 있다.⁵³⁾ 이처럼 찬송가에서 오히려 한국인 작시의 찬송이 줄어들고 있고, 백홍준을 제외하고는 작자미상(원래 표기는 ‘A Native Korean’)으로 그 이름마저 빠져 있다. 비록 시적인 구성력이 부족하고 거친 표현이 많은 결점이 있기는 하나 한국인 자신의 고백 찬미로서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백홍준의 ‘어렵고어려우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렵고어려우니 우리쥬가구하네
웃과밥을주시고 뉘흔것을다주네

(후 령)

어렵고어려우나 우리쥬가구하네

2. 우리기도다듯고 항상갓치잇고나
우리가자나씩나 우리쥬도라보네

3. 하늘에서주지나 세상에서피로워
육을보고수심준 변귀홀곳업서도⁵⁴⁾

그리고 감리교측에서 초기 「찬미가」의 증보 간행에 한국인 노랫말 지음문제를 골몰하면서 검토 권장한 「조선크리스도인회보」의 기사는 인상적이다.

이 두번지 인출하는 찬미가를 이 레비 동안에 발간할 터시오. 우리 교우들이 새책 발간하기를 위하여 수삭 기뻐시니 다시 한권씩 사보기를 즐거히 하소서 이화학당 학도들과

51) 찬미가 곡목에서 이윤선, 『기독교음악사』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77, pp.121~125.

52) 찬양가 곡목에서 앞의 책, pp.125~131.

53) 찬성시 곡목에서 앞의 책, pp.131~136.

54) 민경배, 앞의 책, p.201 중언.

비지학당 학도 증에서 이러흔 찬미가를 지어 문세가 넉넉하고 도리가 분명하야 가히 이 찬미가 속에 박혀 널만하게 되니 우리가 미우 깃부고 고맙게 생각하노라 데 팔십칠장은 비지학당에 있는 혼 학도가 지은 거시오 데 팔십구장은 이화학도 녀학도 수인이 지은 거시라. 이전에 간출흔 찬미가 혼권식 가진 교우들은 목시의게 말하면 새로 지은 찬미가를 잡업시 줄 터시오 이책잡슨 미권 석냥닷돈식이니 다 즉시 혼권식 사서 보시기를 바라오.”⁵⁵⁾

그리고 절기를 위한 노래도 한국인이 지었던 가사가 찬미가를 수용되고 있는데, 「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 그 사연과 가사가 발표되었다. 그 제목은 「성탄일찬미가」였다. 그 사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찬미가는 리화학당 녀학도 은혜가 지은 거시라 은혜가 노래를 짓는 거시 불감흔듯하나 구세쥬 강심흔심은 남녀 호유를 물론하고 일테로 구원흔심시오. 또한 오실 때에 은혜로 나섯시니 성탄일을 당하면 은혜들 모습까지 깃불거시오 깃봄을 인하여 찬미가를 지은지라 구세쥬를 믿는 형대와 쥬미들은 녀적박스와 깃치 귀중흔 레물노 하느님께 밋치고 이 찬미가로 노래하기를 원하노라.”⁵⁶⁾

이처럼 비록 세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한국인이 작시한 찬미들이 그 수에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불리워지고 있었으며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감리교회에서는 「찬미가」에 대한 반응조사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찬미10장씩을 적어보내라고 하여 한국인의 태도와 취향을 알고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이 작시한 노래중에 윤치호역술의 「찬미가」에는 언급한 바와 같이 애국송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05년 한국이 일제에 강탈당하던 해요 是日也放聲大哭하던 때인데, 그 때 鄭喬의 말처럼 교회는 “울음바다”였던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윤치호역술의 「찬미가」에는 애국송과 황제송이 포함되어 한국교회의 민족적 애국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애국가가 문서상으로는 처음 여기에 실려있다. 그 가사에서 1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대한만세”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며 「찬미가」 14장으로 “Auld Lang Syne” 곡으로 불렀다.⁵⁸⁾ 그리고 1장은 ‘황제 폐하송’인데 국왕의 만수무강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독립부강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을 노래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였다. 그리고 10장도 애국송으로 유사한 후렴구에 ‘성조신손 오백년은 우리황실이요 산슈고려 동반도는 우리보국일세’하는 1절과 또 4절까지의 애국과 충성에 관한 내용의 노래를 역시 “Auld Lang Syne” 곡조를 불렀다. 그 외에도 1896년 고종탄생일에 새문안교인들은 기념축하대회를 가지면서 5절로 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군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America”의 곡조로

55) 이만열, 앞의 책, pp.348f, 「조선크리스도인 회보」 데일권 구호 1897년 3월 31일자 중언.

56) 앞의 책 중언. 「대한크리스도인 회보」 1898년 12월 21일 수.

57) 민경배, 앞의 책, p.203.

58) 조숙자, 조명자, 앞의 책, pp.219f.

불렀다.

이러한 민족적 성향의 노래들에 대하여 비록 민경배교수의 말처럼 ‘민족 주체의 교회와 선교 교회와의 한 대결’이라고⁵⁹⁾ 볼 필요까지는 없을 지라도, 선교사들 일반은 그들이 선교할 당시에 가졌던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앙의 철저한 고수를 지향하였으므로 이러한 사회·국가 지향적 성격에 대하여 경계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성향은 장로교측에 더욱 현저하다. 1890년에 내한했던 마포삼열선교사는 초기의 한국교회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정신이 현저하였다는 언급을 한 일이 있고, 미국 장로교 외지 선교부의 총무였던 브라운(A. J. Brown)은 1911년 이전의 주한 선교사들이 전형적인 퓨리탄형선교사들로서 철저한 보수 성향과 함께 자유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⁶⁰⁾ 그 선교사들이 복음외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장로교공인 찬송가였던 「찬성시」에는 단 1곡만 한국인 작사의 노래가 포함되고 있으며, 황제송이나 애국송들이 포함될 여지가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찬성시」에서는 각 찬송에 고정된 곡조를 붙여 통일하는 과정에서 작시만 있는 한국인의 노래들이 빠져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감리교측에서도 비록 장로교만큼 철저한 신학적 보수성은 없었지만 윤치호의 「찬미가」가 공인되지 못한 것을 보면, 선교된 기독교회가 짙은 민족성을 띄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 같다.

3. 초기교회음악이 교육과 사회에 미친 영향.

선교이후 1910년까지의 초기교회음악이 지닌 초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음악은 이 나라의 교육과 사회전반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음악과 함께, 아니 교회음악에 의해서 서양음악이 직접 도입되었다.⁶¹⁾ 비록 서양음악이 처음 소개된 것은 그 이전이라 할찌라도 직접적으로 들어와 사용된 것은 선교이후의 일이다.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교회들은 처음부터 서양음악인 찬송가를 중국이나 영·미의 찬송가로부터 배워 부르면서 예배하고 전도하였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부흥하게 됨에 따라 찬송가의 면모가 세련되었고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골목과 거리에 퍼져 나갔으며 1907년을 중심한 부흥운동때에는 전도대가 북소리에 맞추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선교이전에 음악과 음악인의 지위는 비천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교와 함께 세워진

59) 민경배, 앞의 책, p.204.

6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장로교사(교신) - 1988」 부산 : 교신출판사, 1988, pp.80f.

61) 장사훈, 「한국음악사」 서울 : 1976, p.333.

그는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서양음악을 처음 소개하고 있다고 보았다.

학교들은 처음부터 찬송가를 중심한 음악과목을 중요한 한 교과목으로 교수하였다. 초기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는 1887년경부터 영어로 직접 혹은 번역하여 찬송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됨으로 음악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적 의미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서양음악이 점차 전문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887년에는 오르간으로 반주한 기록이 있고 1891년에는 이화학당에서 성악과 오르간을 가르쳤다. 그리고 190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합창단인 ‘이화학당’이 조직되어 황성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의 ‘할렐루야’를 연주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⁶²⁾ 그리고 1910년에는 이화전문학교에 음악과를 둘 정도였다. 그리고 1897년 설립된 숭실전문학교는 서북지방에서 교회음악이 본거지가 되어 가르쳤는데, 특히 김인식이 선교사를 통해 노래와 오르간을 배우고 혼자 바이올린을 배워 숭실학교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연주하였다. 그는 또 1905년 ‘학도가’를 작곡하였고 후에 많은 음악가들을 양성하였다. 즉 초기교회음악을 통하여 전통음악에서의 음악적 위치와는 다른 의미의 서양음악의 전문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미션학교들을 통해서이다.

둘째는, 교회음악의 영향으로 생겨난 ‘창가’이다. 창가란 백철씨의 말대로 글자의 뜻이 말하는 바 ‘부르는 노래’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시조나 가사가 아니고 서양식 악곡에 의해 신식으로 부른 노래’였다.⁶³⁾ 그런데 이 창가는 처음에 찬송가의 곡조에 가사를 지어서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가라는 그릇을 빌어 개화운동과 애국송들을 창가의 형식으로 불렀다. 이러한 창가는 내셔널리즘의 기치가 되었고 신문학운동, 나아가서는 예술가곡과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문화의 모체가 되었다.⁶⁴⁾ 초기 기독교 학교에서 불렀던 창가과목은 창가, 찬송가 그리고 외국의 가곡들이었는데, 자연히 개화운동을 위한 대중적 호소를 지녔으므로 급속하게 사회전반에 보급되었다. 이 ‘창가’는 문학적 측면에서는 신체시의 형태로 발전적인 전환을 했고, 음악적인 면에서는 한국예술가곡의 터전이 되었다.⁶⁵⁾ 1910년에 대한제국학부에서 발행한 「보통학교창가집」에 보면 일본 통감부의 압력으로 애국가나 독립가는 제외되고 일본노래가 많이 수록되었지만 그 중에도 찬송가 곡조에 새로지은 가사만 붙인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곧 “갈지라도 갈지라도 바다 또한 바다”는 “샘물과 같은 보혈”의 곡조이며, “언덕위에 술을 심어 10년후에 다 자랐네”는 1949년 발행된 합동찬송가 54장의 곡이다.⁶⁶⁾ 찬송가나 창가를 부르면서 공동체의식과 대중적 각성을 일깨워서 의식이 몽롱했던 정신을 각성시키고 독립정신과 부지런해야겠다는 자각 혹은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더 나아가 봉건적 사상과 보수적 사상, 인권멸시의 사고방식을

62) 원진희, 「교회음악약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6, p.130.

63) 이우선,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 음악춘추사, 1985, p.39 재인용.

64) 김정일, 앞의 글, p.12.

65) 김진균, “기독교 찬송가가 한국 음악문화에 미친 영향”, 동서문화 창간호 1967, p.95.

66) 원진희, 앞의 책, p.130.

혁신하고 자유와 평등 민주의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민족수난에서 해방을 얻도록 끊임없이 격려한 밑거름이 되었다.⁶⁷⁾ 사회참여로 나타난 창가의 예를 들면 1896년 「황제탄신축가」가 그 시작이었는데, 영국국가의 곡을 만수절의 노래라 하여 언더우드가 가사를 짓고 이화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던 새문안교회의 축하예배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은해 독립을 정초식에서 배재학당학생들이 Auld Lang Syne곡에 윤치호 작사의 애국가를 불렀던 것도 이러한 찬송가와 창가의 사회참여적 형식의 실례이다.⁶⁸⁾

세번째, 초기교회음악의 영향은 한국어생활에 가져다 준 혁신이다. 당시만 해도 언문은 한자에 토를 단 것으로 천시되었으며 거의 모든 서적도 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사실상 의사전달의 매체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과 찬송가 가사의 번역작업과 한글사용으로 신문학운동과 한글사용의 애착에 대한 결정적 기초를 놓았다. 최초의 국한문 혼용의 언문일치의 문장으로 된 유길순의 「서유경문기」(1899)보다도 7년이나 전에 1896년의 독립신문보다 4, 5년 이전에 한국최초의 신체시인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1909)보다 20여년 전에 이미 찬송가는 한글로 번역되었다.⁶⁹⁾ 그리고 그 발행부수에 있어서도 최초의 한국잡지 「소년」이 발행된 1908년 찬송가의 발행부수는 6만부, 2년후 22만5천부, 그 다음해에 5만부, 이렇게 해서 20년간의 발행부수가 87만4천5백부에 달했으므로⁷⁰⁾ 가히 한국민족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공헌도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상상을 능가한다. 그러므로 한국초기의 교회음악은 한글사용과 신문학운동에도 실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결 론

이제까지 살펴본 선교이후 1910년까지의 한국교회 초기 교회음악은 선교를 통한 한국교회의 성격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서양음악의 한국 도입과 발전, 교육의 측면에서, 또 한국사회의 개화, 계몽적 운동과 문화적 측면에서 뺄 수 없는,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이 분명해졌다.

먼저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 초기의 교회음악은 선교교회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찬송가는 한국교회사와 꼭 같은 변천의 과정을 걸었으므로, 한국교회사의 선교와 신학적 요지를 그대로 그 찬송가의 역사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찬송가가 거의 핵심적이며 범위에 있어서도 전체였던 한국초기 교회음악은 그 찬송가의 내용과 종류에서 볼 수 있듯이 선교신학적인 측면에서 복음적인 내용을 결정적으로 보

여주며 영국과 미국의 복음부흥성가들이 거의 전체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찬송가의 발간과 종류, 분립과 합동의 노력에서 한국교회 초기의 교파 선교적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초기적 교회였으므로 한계는 있었을찌라도 한국인의 독자적 고백과 찬송들이 필요성만큼 많이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초기 교회음악은 교회의 예배와 전도활동 교육활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그리고 바른 복음적 가르침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두번째로 음악적 측면에서 초기교회음악은 서양음악의 한국도입이었으며 한국에서 서양음악이 발전하여, 음악이 마치 서양음악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만큼 큰 영향을 발휘하게 한 기초였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을 보편화시켰고, 전통적인 음악에 대한 천시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결정타였다. 비록 초기의 교회음악이 그 수준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서양음악발전의 기초였고 동기를 불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초기의 교회음악은 당시의 사회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창가로 발전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지만 한국인의 정신을 계몽시키고 애국충정의 마음을 고취시켜 열강의 세력속에서 고통하는 중에 조차 종교적 열정과 함께 비전을 잃지 않게 하였던 고무제, 격려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찬송가를 알지 못할 때 슬픔과 비애와 타령의 노래, 향락적인 노래만을 불렀던 이 백성들이 어두움에 아침 태양이 막 솟아 오르듯 희망과 용기와 감격과 위로의 마음으로 밝아지도록 노래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민족은 극한 시련의 시절을 견뎌올 힘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67)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앞의 책, pp.142f.

68)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음악사」 서울 : 대한민국예술원, 1985, p.481.

69) 이유선, 앞의 책, p.141.

70) 같은 책, p.142.

참 고 문 헌

김건정, 「교회전례음악」, 서울 : 카톨릭출판사, 1987.
 김광수,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원, 1978.
 김진균, “기독교 찬송가가 한국음악문화에 미친 영향” 동서문화창간호, 1967.
 김정일, “한국 교회음악의 주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2집 부산 : 고신대학, 1984.
 나운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제4수상집」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음악사」 서울 : 대한민국예술원, 198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장로교사(고신)-1988」 부산 : 고신출판사, 1988.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교회와 민족」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원진희, 「교회음악약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 음악춘추사, 1985.
 , 「기독교음악사」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77.
 이중태, 「한국교회음악사」 서울 : 기독교음악사, 1979.
 조숙자, 조명자, 「찬송가학」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1.
 한영제편, 「한국성서 찬송가100년」 서울 : 기독교문사, 1987.
 홍정수, 「교회음악개론」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8.
 Paik, Lak-Geon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 Yonsei univ. press. 1970.
 Underwood., L. H., *Underwood of Korea.* Fleming H. Revell Co. 1918.

1989년 12월 28일 인쇄
 1989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전 호 진
 편집 고신대학출판부
 인쇄처 육일문화사
 Tel. 465-5164
 48-2002

고 신 대 학	
영도(대학본부)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49-1	
606-080	전화 : 412-8062~4, 413-0576~8
송도캠퍼스	
602-030	전화 : 256-3181~2, 257-5131~3